

수협 탐방

<13>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돔·농어 등 '기르는 수산' 선두주자

작년까지 11년 연속 흑자 경영 모범조합 자리매김

양식 기술에 IT접목 '돌아오는 어촌' 만들기 주력

한려수도의 푸르고 맑은 바다. 기르는 어업의 가장 자리에 있는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임영윤)은 흑자 경영을 실현하는 모범조합으로 이름이 나갔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흑자를 내왔고 2013년 결산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 장관포상 수상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상호금융 5개년 목표달성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탁금 증대 및 건전한 여신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수협 상호금융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이다.

이러한 결실은 조합장을 중심으로 임·직원과 조합원이 하나돼 양식어업의 성장에 매진하고 수산물유통과 금융 업무에 매달린 덕분이다.

업종별 수협인만큼 이 조합도 어려울 때가 있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지난 1995년 2월 설립 이후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범람과 해마다 반복되는 비브리오패혈증 논란에다 해수어류양식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여름철 태풍 등의 악재로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게 다반사였다. 급기야 지난 2002년에는 경영 악화로 정부의 일선 수협 경영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조합으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한 수협은 달랐다. 악전

고투 끝에 희망을 일군 것이다. 조합 임·직원은 불철주야 조합원들과 함께 했으며 일반 고객에게까지 금융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2004년에는 2억2300만 원의 흑자를 내고 회생의 희망을 다질 수 있었다. 또 같은 해 450억원의 누적 적자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남 통영해수어류양식수협을 계약이전하면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로 끌어안는 등 다 같이 잘살자는 협동조합의 정신도 실천했다.

하지만 어류양식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르는 수산의 상황은 밝지만은 않다.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적조는 어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수입산과의 경쟁에 피가 마를 지경이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의 주력 어종인 돔·농어·조피볼락 등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 어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연조건 때문. 우리 해역보다 중국 남방 지역이 이들 어종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수협은 이들 어종을 조민감품목으로 분류,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어업인이 젊어지고 양식기술을 현대화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귀농 바람과 함께 '귀어'도 활성화되



임영윤 조합장

젊은이들의 유입이 늘어가는 건강한 어촌이 되길 바라고 있다. 어촌사회가 고령화, 공동화, 생산력 저하로 소득이 감소하고 3D업종이라는 인식에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어 그 공백을 외국인력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을 바꿔 어업을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양식어업에 IT를 도입하는 현대화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어선어업은 물론이고 양식업에도 첨단기술을 접목해 젊은이들을 유입해야 한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수협은 정부의 1%대 저리 융자를 100% 지원으로 바꿔주었으면 하던 바람이다. 그래야만 어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고 현대화, 기계화로 비전을 제시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윤 조합장은 "우리 수협은 양식업의 쇠퇴라는 악조건에서도 460여 조합원의 노력으로 건설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조합원과 어업인은 조합을 더욱 지켜주고 임·직원은 땀물 뽀물 양식업 부활의 불씨를 살려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통 두부 이렇게 만들어요"

지난 24일 순천 주암 한솔영농조합법인에서 열린 농산물식품 현장체험행사서 참가자들이 순천 두부과 비지쿠기 만들기를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돈희)은 현장에서 직접 전통식품 인증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전통식품 인지도 향상과 판로 개척을 위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어촌체험마을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동 걸었다

해수부, 5곳 지정 시범운영
오늘 서울서 유치 설명회

해양수산부가 어촌체험마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어촌체험마을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인 2000명을 10월 중에 달성, 연말까지는 약 25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어촌체험관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40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어촌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어촌 문화 홍보 및 어촌의 소득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국제

관광 어촌체험마을'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 관광객 어촌체험마을을 유치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7월에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마을 등 5개 어촌체험마을을 '국제관광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후 8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시작했다.

해수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어촌체험마을 유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30일 뉴욕제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어촌체험마을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7~8일에는 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어촌체험마을을 초청 홍보 여행을 실시하는 등 어촌체험마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권준영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쇼핑 이외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어촌체험의 관광 상품화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어촌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어류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류 양식어민들의 지위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 해안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작업 모습.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제공>

내년부터 74세 농업인도 경영이양직불금 신청

신청가능 연령 65~70세→65~74세로 확대 추진

내년부터 74세 농업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연령을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해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했던 경지를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75세까지 1ha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수해 농민이 젊은 농민들에게 농지를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하 농민에게 농지를 이양하도록 한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를 사거나 빌리는 농민이 전업농인 경우 기존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전업농이 아닌 농민일 경우 기존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 직불금 수혜농민이 다른 농지를 빌려 농사짓거나 빌려준 농지에 소유권을

행사해 농사를 방해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3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전업농 등의 영농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경영이양직불금 수령 상한액은 1천200만원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90억원을 편성해 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소득 외에 연간 3700만원 이상을 버는 농업인은 조건·경관·발치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가 6억 7천
(보 4천, 용자 1억 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양임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 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 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물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 8천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옹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 8천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환인 → 1억 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 1천만
(보 1천, 월 70만, 용 5천만)

062)527-76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늠치런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군/린/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780.2㎡, 건 1992.57㎡) 감평가 24억 7천 최저가 13억 8천 (유찰 1회) 투자적합
- 광주 동구 동명동 (토지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17억 신건
- 광주 서구 화평동 (토지 171㎡, 건 501㎡) 감평가 2억 7천 최저가 2억 7천 신건
- 광주 서구 화평동 (토지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 유찰 1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1599㎡, 건 17380㎡) 감평가 200억 최저가 200억 신건

군/린/주/택

- 광주 광산구 소천동 (토지 400㎡, 건 294㎡) 감평가 3억 7천 / 최저가 3억 7천 신건
- 광주 동구 학동 (토지 204㎡, 건 541㎡)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신건
-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 197㎡, 건 362㎡) 감평가 3억 8천 / 최저가 2억 6천 신건

숙/박/시/설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 1182㎡, 건 22289㎡) 감평가 32억 / 최저가 10억 8천 유찰 2회
- 광주 서구 광천동 (토지 235㎡, 건 980㎡) 감평가 7억 / 최저가 4억 유찰 2회

오피/피/스/텔

- 광주 광주 동구 (토지 6.6㎡, 건 24㎡) 감평가 2천 4백 / 최저가 1천 9백 유찰 1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4.9㎡, 건 31㎡) 감평가 6천 / 최저가 3천 유찰 2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42㎡, 건 190㎡) 감평가 3억 / 최저가 8천 유찰 6회

공 장

- 광주 광산구 옥동 (토지 16315㎡) 감평가 150억 / 최저가 150억 신건
- 광주 광산구 월전동 (토지 4162㎡, 건 3582㎡) 감평가 300억 / 최저가 20억 유찰 2회

대 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 3974㎡) 감평가 44억 / 최저가 31억 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용동 (토지 787㎡) 감평가 1억 3천 / 최저가 7천 3백 (유찰 1회) 투자적합

경매 직원취급,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측처럼 가늠치런 같이 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합, 설계, 부동산 관련 전제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취급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취급

010-6670-9800, 062)952-5584